

“기회를 잡아라”... ‘화수분 야구’가 쏘아 올린 희망

반환점 돈 2025 프로야구

KIA 결산 <하> 타자

주축 타자 이탈 불구 OPS·득점·대타 타율 등 공격 지표 상위권 최형우·위즈덤 ‘건재’... 오선우·고종욱·김호령 “우리도 있다” 득점권 타율 0.257 ‘리그 8위’, 찬스에서 부족했던 ‘한끗’ 과제로



수치만 보면 충분했다. 그러나 체감은 아쉬웠다. 2025시즌 전반기, KIA 타 이거즈 타선은 ‘효율’과 ‘완 성도’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어갔다. 김도영, 나성범, 김선빈 등 주축 타자들이 잇 달아 이탈했지만, 팀 타율 0.261(4위), OPS 0.745(3위), wRC+ 109.7(2위) 등 대부분의 핵심 지표 는 리그 상위권에 자리했다. 대타 타율 역시 0.290로 리그 1위. 백업과 벤치 전력에 기대 이상으로 제 몫을 해냈다는 방증이 다. 이 흐름은 시즌 초반부터 이어졌다. 3-5월 팀 타율은 0.251(5위), OPS는 0.721(4위), 경기당 득 점은 4.62점(4위)으로 준수한 수준을 유지했다. 핵심 자원의 이탈 속에서도 중심 타선은 제자 리를 지켰고, 백업 자원들이 빠르게 공백을 메웠 다. 다만, 경기양상 속에서 명확한 한계도 드러났 다. 전반기 총득점은 430점으로 리그 4위에 올랐 지만, 득점권 타율은 0.257(8위)에 그쳤고, 찬스 에서의 흐름 단절이 반복됐다.

흡린 80개(공동 2위) 등 장타 생산력은 있었으 나, 몰아치는 ‘무음 득점’보다 단발성 득점이 많 은 구조였다. 공격 효율은 갖췄지만, 기회를 연결하는 힘은 아쉬웠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팀 공격의 중심을 지탱한 선수들의 존재감은 분명했다. 최형우는 타율(0.329) 리그 3위, 출루율(0.432) 과 OPS(0.996) 1위, 득점권 타율(0.347) 팀 내 1위 를 기록하며, 클러치 상황에서 꾸준한 해결사역 할을 해냈다. 외국인 타자 위즈덤 역시 전반기 흡린(20개) 과 OPS(0.948) 부문 모두 리그 2위에 오르며, 중 심 타선의 장타력을 책임졌다. 백업 자원에서 주전으로 도약한 오선우의 활 약도 인상적이었다. 4월 중순 콜업 이후 줄곧 1군에서 활약하며 타 율 0.307, OPS 0.840, 3타점을 기록, 전천후 공격 수로 자리매김했다. 중심이 버텼고, 2군에서 올라온 선수들이 힘 을 더했다. 6월 초 콜업된 고종욱은 1번 타순에서 활발한



오선우



김호령



고종욱



김석환

<KIA 타이거즈 제공>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수행했고, 김호령은 4월 말부터 하위 타선에 고정돼 공수에서 기여했다. 특히 7월엔 타율 0.406으로 팀 내 최고 타격감을 뽐냈다. 김석환, 김규성, 이창진 등도 각자의 위치에서 타선에 숨결을 불어넣으며, ‘있음 야구’의 실체 를 완성해갔다. 이러한 집단 활약은 6월 본격적인 ‘타선 반동’ 으로 이어졌다. 이 시기 KIA는 팀 OPS(0.776)와 장타율(0.42

3) 모두 리그 1위를 기록했고, 월간 흡린(25개) 부문 역시 1위에 올랐다. 하위 타선까지 타격 생 산이 분산되며 응집력과 집중력이 눈에 띄게 살 아났다. 흐름은 7월에도 유지됐다. 전반기 마지막 9경기에서 팀 타율 0.296, OPS 0.801로 리그 2위를 기록했고, 중심과 하위 타순 이 함께 기회를 만들어가는 짜임새 있는 공격이 이어졌다. 이제 중요한 건 ‘수치’ 너머의 야구다.

OPS와 장타력은 상위권에 올랐지만, 찬스를 살리는 결정력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기회를 점수로 연결하는 힘, 후반기엔 그 ‘한 곳’이 갈림길에 될 수 있다. 김선빈과 나성범의 복귀가 임박했고, 김도영 도 8월 중 합류가 예상된다. 전반기 자신감을 얻은 백업 자원과 돌아오는 주축들의 시너지가 더해진다면, KIA 타선은 보 다 단단한 밸런스와 폭발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 다. /주홍철 기자

“2025 광주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기원합니다”

광주시 장애인체육 발전위원회, 후원금 전달

광주시장애인체육 제2기 발전위원회가 오는 9월 광주에서 열리는 ‘2025 광주 세계장애인양 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후원금 1 천만원(2025 광주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 대 회 조직위원회에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정선교 발전위원장(주대명외식 산업 대표이사), 윤진영 추진위원장(주록연 대 표), 한상득 수석부회장, 김현성 사무처장을 비 롯해 이연 2025 광주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 대 회 조직위원회 사무처장, 이종호 집행위원 장(광주장애인양궁협회장) 등 관계자 30여명 이 참석했다.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에 출 전하는 국가대표 김옥금·윤태성도 함께했다. 이번 후원금은 광주가 2011년 이탈리아 아토리노, 2019년 네덜란드 스텔트호벤보스에 이어 세 계 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를 동시 개최하는 세 번 째 도시가 되는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대 시민 홍보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선제적 참 여 차원에서 이뤄졌다. 전달식 후에는 이연 사무처장이 ‘국제스포 츠대회 개최와 도시마케팅’을 주제로 체육회



정선교 광주장애인체육 제2기 발전위원회 위원장 등이 지난 14일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이연 사무처장에게 1천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한 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제공>

임직원과 선수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한편 오는 9월22-28일 광주국제양궁장(예·본선)과 5·18민주광장(결승)에서 진행되는 ‘20 25 광주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는 42개국 420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며, 광주를 대표해 김 옥금(W1)·윤태성(컴파운드·이상 광주시청 장애인양궁팀)이 태극마크를 달고 금빛 도전 에 나선다. /박희중 기자

광주FC 아사니, 팀 K리그 팬 일레븐 선발

오는 30일 뉴캐슬전 출격...이정호 감독은 코치로 동행

프로축구 광주FC의 ‘알바니아 특급’ 아사니(사진)가 팀 K리그 대표 선수로 발탁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오는 30일 수원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2025 쿠팡플레이 시리즈’ 에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소속 뉴캐슬 유 나이티드와 맞대결에 나설 팀 K리그 ‘팬 일레븐’ 명단을 발표했다. 연맹은 지난 4일 팬 일레븐 후보를 공개한 이 후 13일까지 투표를 진행했다. 공격수 3명, 미드 필더 3명, 수비수 4명, 골키퍼 1명 등 총 11명을 선발했다. 아사니는 팬 일레븐 공격수 부문에 1만7천98 0표로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잉글랜드 명문 구 단 뉴캐슬을 상대하는 영광을 안게 됐다. 아사니는 올 시즌 18경기 6골 2도움으로 팀 내 최다 공격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유



의 원발 슈팅과 감각 적인 드리블로 명실 상부한 K리그 대표 공격수로 자리매김 했다. 아사니는 “K리그 를 대표하는 선수들 과 함께 뉴캐슬을 상 대할 수 있어 매우 기대가 된다”며 “많은 투표를 해주신 팬 분들 에게 정말 감사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2025 쿠팡플레이 시리즈에 나설 팀 K리그 코치로 이정호 감독이 선임됐으며, 아사니와 함께 광주를 대표할 예정이다. /박희중 기자

클럽월드컵 우승은 첼시가 했는데...트로피는 트럼프 품으로

2025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월드컵에서 첼시가 우승을 차지하며 대장정의 막을 내렸 으나 우승 트로피를 놓고 뜻밖의 뒷말이 나오 고 있다. 제작비가 3억원에 달하는 황금빛 트로피가 첼시가 아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품으로 돌아가게 될 상황이라는 것이다. FIFA가 제작한 클럽월드컵 트로피가 앞으 로 트럼프 대통령이 일하는 백악관 집무실에 보관될 전망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이 14 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날 클럽월드컵 결승전에서 프랑스 파리 생 제르맹(PSG)을 누르고 우승한 트로피의 진정한 주인, 잉글랜드 프로축구팀 첼시는 트로피 의 ‘사본’을 받아 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열린 첼시와 PSG의 경기 도중 대회 공식 중계인 영국 스트리밍 플 랫폼 다즈(DAZN)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백악 관에 보관 중인 트로피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앞서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이 3월 백악 관을 찾아 클럽월드컵 트로피를 공개했고, 이 후 트로피가 오벌오피스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던 채였다.



첼시 우승 세리머니에 중랑 차지하고 있는 트럼프 (AFP·연합뉴스 사진)

트럼프 대통령은 “(FIFA 측이) 트로피를 잠 시 보관해주겠느냐고 해서 오벌오피스에 왔다. 내가 언제 트로피를 가져갈 거냐고 물어보니, ‘안 가져간다. 오벌 오피스에서 영영 가지고 있 을 수 있다. 우리 새것을 만들 거다’라고 했다” 고 전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새 트로피가 제작됐다. 정 말 신난다. (기존 트로피는) 지금 오벌오피스 에 있다”고 말했다. 두 트로피가 완전히 동일하지, 일부 차이가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서석고, 춘계 전국중·고 검도대회 단체전 우승

2년 만에 정상 탈환...이정환 3위 서석중, 단체전 3위...옥하준 준우승

서석고가 제7회 춘계 전국중·고등학교 검도 대회 고등부 단체전 정상에 올랐다. 서석고는 지난 13일 강원 제1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단체전 결승에서 온양용화고와 3-3 으로 비겼으나 포인트에서 5-2로 앞서 우승을 차지했다. 서석고는 1회전에서 차약고(3-3·포인트 7 -5), 2회전에서 원통고(3-3·포인트 5-5·대표전 이정환 승), 3회전에서 명신고(2-1)를 연파하 며 준결승에 올라 인천고(3-3·포인트 6-4)를 꺾고 결승에 안착했다. 서석고는 6회 대회 단체전 우승 이후 2년 만 에 정상을 탈환했고, 지난날 열린 제8회 대한검 도회장기에 이어 두번째 단체전 우승을 차지



제7회 춘계 전국중·고등학교 검도대회에서 남고부 단체전 우승, 남중부 단체전 3위를 차지한 서석중·고 검도부 선 수단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광주시검도회 제공>

했다. 팀 주장 이정환은 개인전 3위를 기록했다. 이정환은 경기 내내 침착한 기량과 빠른 판 단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상대들을 연이어 꺾 으며 준결승까지 진출했으나 김도원(원통고) 에게 0-1로 패하며 아쉽게 3위에 머물렀다. 서석중 옥하준은 남중부 개인전에서 준우승 을 차지했다. 서석중 검도부는 남자중등부 단체전 3위를 차지했다. 서석중은 1회전 서원중(4-1), 2회전 원통중 (3-1), 3회전 형남중(3-1)을 연이어 제압하고 준결승에 올랐다. 하지만 준결승서 상인전중에 1-1 무승부를 거뒀으나 포인트에서 1-2로 졌다. 서석중 옥하준은 남중부 개인전에서 준우승 을 차지했다. /박희중 기자